

고즈넉한 가을밤 '조선팝' 매력에 퐁당

전주시, 18~20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전주조선팝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고즈넉한 가을밤 정취를 더하고, 전주시 대표축제인 '전주페스타 2024'에 흥을 더할 '조선팝'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4 전주페스타'가 진행 중인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통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2024 전주조선팝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조선팝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10월 축제시즌 '전주페스타 2024'를 맞아 조선팝의 매력에 더욱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사흘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인지도 있는 뮤지션 9팀과, 지난 9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조선팝 뮤지션 12팀 등 총 21팀이 노래와 연주, 퍼포먼스 등 다

양한 장르의 조선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김계희밴드' 팀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김이당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 △시나위현대국악 △삼산 △밴드 날다 △이희문프로젝트 '오방신과'의 공연이 펼쳐지며, 화려한 드론쇼가 첫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어 19일과 20일 이틀간 △국은예예트 △파르베 △운세연 △하운주 △배익한 재즈오케스트라 △고래야 △두번째달with이봉근(이상 19일) △빅바플 △한강공작 △국악인가요 △공상명월 △차차웅 △밴드 경지 △서도밴드(이상 20일)의 조선팝 공연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이번 전주조선팝페스티벌은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 찾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는 사정상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조선팝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별도로



2024 전주조선팝페스티벌 포스터

제작해 '조선팝TV'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조선팝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캐리

커처, 전통자게 키링·손거울 만들기, 티셔츠 페인팅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시는 향후 꾸준히 조선팝을 홍보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고,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콘텐츠로 육성해 전주를 조선팝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소리의 고장 전주를 전통 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장르인 조선팝의 본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됐던 전라감영에서 '2024 조선팝 공연'과 8월부터 9월까지 세병호 등에서 '조선팝 상설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매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각양각색 공연팀들의 전통 소리와 성악의 만남,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의 결합 등 다양한 장르가 조화를 이뤄 공연 무대가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라며 "완연한 가을밤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조선팝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18~19일 전라감영 일원서 다채롭게 진행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라감영 일원에서 전주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 등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0회 2024 전주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기념행사(개·폐막식) △전시·판매·정책홍보 부스 50여 개(판매·체험 30, 공공기관 4, 홍보관·역사관 등 7) 운영 △부대행사(정책 포럼, 기업투자유치 발표대회, 협동 골든벨, 제기차기 등)로 풍성하게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첫날 오후 3시 전라감영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상영에 이어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과 ESG 패선 위킹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지역현안을 토론향하는 '정책 포럼' △사회적경제와 전라감영에 대한 퀴즈인 '협동 골든벨' △사회적경제 상품 뽑기인 '상생오라실'과 제기차기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만약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 관



계기관 및 안전 부서와 협조해 사전에 화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장 주변에 안전관리 요원과 행사 운영 안내 요원, 주차통제 요원 등의 인력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행사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범시민 대상 홍보와 기업의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채로운 행사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우수상품들이 전시·판매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영화영상산업 인재 육성 위한 버추얼 프로덕션 사례 공유

전주 K-FILM 크리에이터 양성 위한 VP 기술 세미나 열려

전주시가 첨단 촬영기법을 활용한 영상제작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한 VP(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4일 CGV 전주고사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지역 영화·영상 관계자,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학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주 K-FILM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VP(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초대형 LED 월(Wall)에 3차원 배경을 투사해 배경과 배우를 동시에 촬영하는 기법으로, 이를 활용하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상의 배경과 인물을 구현할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환영사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문을 연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VP 선도기업들의 4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박성태 에픽게임즈코리아 차장은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공정을 주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4일 CGV 전주고사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지역 영화·영상 관계자,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학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주 K-FILM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VP(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손승현 웨스트월드 대표가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영화제작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박준근 KBS 한국방송 부장과 신철호 75mm studio 대표가 각각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과 'VFX 파이프라인에서의 현장 Onset Date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버추얼 프로덕션 선도 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이날 세미나에 이어 전북독립영화제 기간인 오는 11월 1일 CGV 전주고사점 4관에서 VP기술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룬 2차 VP 기술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 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수 선진 사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해 전주지역 영화·영상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미영업 축산물 취급업소 일제정비

전주시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된 축산물 취급 영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자는 폐업 시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 사항을 제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10월 셋째 주부터 2주간 자진 폐업 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영업주의 자진 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등록 폐업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 직권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는 관내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정문과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서원초등학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운전자전주완산지회 등 30여명이 동참해 "내가 지킨 교통질서,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등교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과 시민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 △운전자 차량 신호 및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권현숙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



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효자2동 박시용 동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주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금일 캠페인을 통해 안전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2024 국제종자박람회

KOREA SEED EXPO 2024

2024. 10. 16. 수 - 10. 18. 금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www.koreaseedexpo.com